

조선

가볍게 보기 어려운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

2013. 5. 02

조선/기계
Analyst 박무현
02.3779-8967
bossniceshot@etrade.co.kr

가스와 달리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

2차 Oil Shock 직후인 '80년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미국 석유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OPEC이 석유 공급부족을 일으키자, 카터 행정부는 복잡한 가격시스템과 세금혜택을 동원해 석유재고에는 가격을 제한하면서도 새로 산출한 석유는 가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곧 바로 석유 시추 열풍이 불어 닥쳤으며 유정은 투기판으로 변지게 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당선 후 석유 산업 규제완화계획을 발표했으며, 동시에 중동 석유카르텔은 경쟁압력이 붕괴해 미국 석유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면서 석유시추장비 시장은 냉각기로 접어들게 된다.

'0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은 심각한 가뭄과 겹치면서 미국의 복합화력발전수요를 크게 늘리게 되었고 이는 카타르 LNG개발을 불러왔다. 동시에 미국에서도 Shale gas 개발이 활기를 띄면서 '03~'08년 미국의 시추장비수요는 크게 늘어났다. '05년 미국의 Shale gas 개발 성공으로 천연가스 생산량이 급증했지만, 원유와 달리 가스수출은 자유롭지 않아 Henry Hub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돼 가스채굴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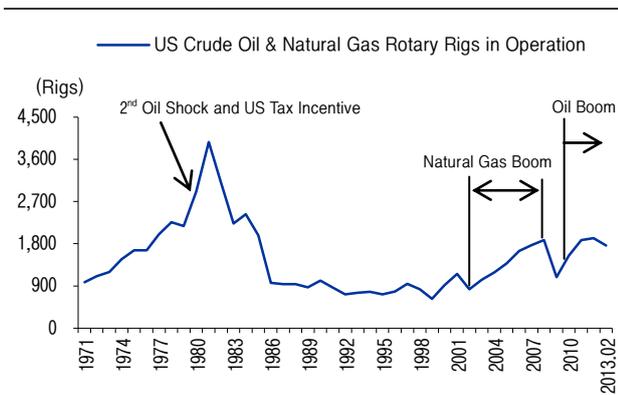
가스와 달리 원유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시추기술의 진화로 최근 에너지기업들은 Shale Oil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원유생산 증가로 해양시추설비 매력 점차 낮아질 전망

현재 미국의 가스와 원유 생산량 증가는 시추 기술의 진화와 낮은 경제성이 복합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Shale gas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추 기술혁신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전통석유 채굴을 가능케 하고 있다. Henry hub가격과 달리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에너지기업들로 하여금 Light Tight Oil 생산량은 늘리는 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는 Shale Oil 생산에도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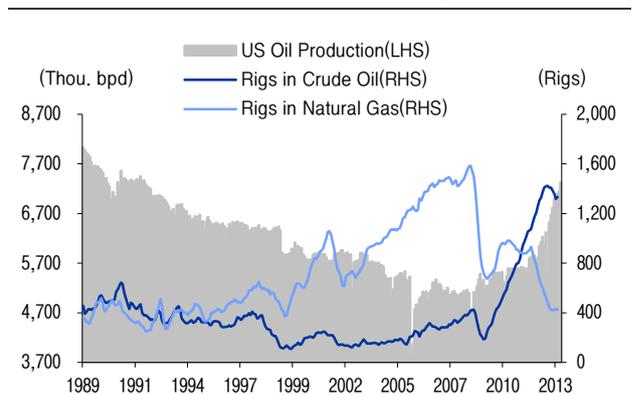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원유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 전망은 점차 하향되는 추세이다. 해양시추설비에 매력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US Annual Rigs in Operation



자료: EIA,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US Natural Gas and Crude Oil Rotary Rigs in Operation



자료: EIA,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무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보류